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가톨릭 성가 130번> 예수 부활하셨네	<가톨릭 성가 429번> 알렐루야	<가톨릭 성가 167번> 생명이신 천상 양식	<가톨릭 성가 129번> 알렐루야 노래하자

제 1독서 | 사도행전 10,34.37-43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시다.>

화답송 |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좌)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우)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좌)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제 2독서 | 콜로새서 3,1-4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부속가> - 제 2독서 후에 함께 바치겠습니다.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게	민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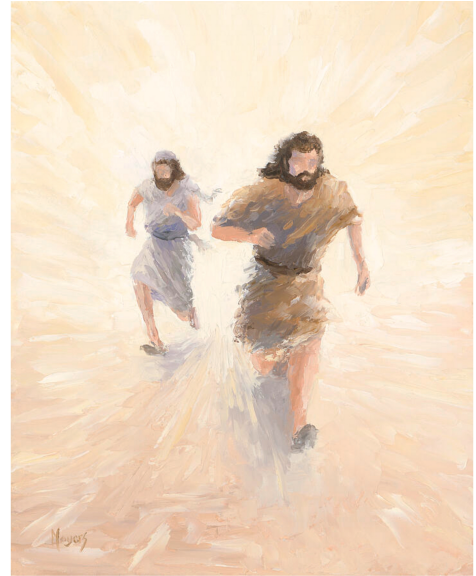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20,1-9

<오늘의 복음> 요한 20,1-9

- 1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 2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3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 4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 5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 6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 7 예수님의 얼굴을 찼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
- 8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9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 육신의 부활 -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Q. 교황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한 여인들과 사도들은 스승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상처를 보여 주시고 빵을 떼어 나누시며,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야 비로소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실제 육체를 지니신 몸이었지만 동시에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육신이 이전과 같은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광스러운 몸'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A. 우리는 '영광스러운 육신'이 무엇인지 완전히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표지들을 통해, 이 현실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표지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몸을 찌움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물질 자체도 영원을 향해 부름받았으며, 실제로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아무것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이 물질을 새로운 생명의 상태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서는 더 이상 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죽음을 통과하심으로써, 그분은 생물학적, 물리적 법칙을 넘어서는 상태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를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게서 그것이 드러나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큰 약속이 됩니다. 곧 우리가 향해 가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상태 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손을 내미시며, 함께 식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생물학적 조건을 넘어서는 존재로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참된 하느님이시자 참된 인간이시며 유령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은 더 이상 죽음에 지배되지 않는 새로운 삶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약속입니다.

십자가상 죽음으로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와 다시 화해시켜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찬미합시다. 알렐루야!

유다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붙들려 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사도만이 예수님 뒤를 따라갔지만, 밤새 세 차례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듣고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또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 건네신 말씀이 평화의 인사입니다. 요한 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세 차례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대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에페 2,14)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을 평화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평화는 태초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그 상태를 잘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하느님의 숨을 받아 하느님을 닮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죄와 연루되지 않고, 하느님을 아버지로 하는 한 형제로 서로 사랑하며 살면서 하느님께서 맡겨 주신 세상을 잘 돌보는 것이 평화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하느님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는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을 떠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시작하신 구원 경륜은 죽음이 지배하는 죄의 역사를 다시 하느님 품 안으로 회복시키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긴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구원의 메시아를 약속하

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와 그분이 맺어 주실 새 계약을 기다렸습니다.

때가 차자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것은, 이제 그분이 가시는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게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의 죄를 당신 몸에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태초에 원하셨던, 하느님을 닮은 인간의 모습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예언자가 전한 소식입니다.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 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 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이사 53,4-6)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평화에 이르셨고, 그 평화를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평화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미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은총을 받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평화는 하느님과의 화해이며, 이웃 형제자매들과의 화해는 물론 모든 피조물과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콜로 1,20)

공지 사항

1. 성당 공동체 가족 정보 조사 안내

우리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을 더 깊이 알고, 하느님 안에 한 가족으로서 사랑과 친교를 더욱 키워 나가기 위하여 간단한 정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에 동의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성전 앞에 있는 표를 가족 단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내용: 성함, 세례명, 생일, 축일, 소공동체 반

<교황님 기도 지향: 위기에 처한 사제들을 위한 기도 >
주 예수님,

착한 목자이시며 저희 여정의 동반자이신 주님,
오늘 저희는 모든 사제를 당신께 맡기나이다.
특별히 고독이 무게를 더하고, 의혹이 마음을 가리며,
피로가 희망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위기의 순간을 겪고
있는 사제들을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그들의 투쟁과 상처를 알고 계시는 주님, 그들 안에
있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하소서. 그들이 자신을 단순히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나 고독한 영웅으로 느끼지 않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녀이자 겸손하고 소중한 제자이며, 하느님
백성의 기도로 지탱되는 목자임을 깨닫게 하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저희 공동체가 사제들을 돌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소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완벽함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감사를 전하게 하소서.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세례의 사명을 그들과 공유하며, 진실한
기도와 친밀함으로 그들과 동행하게 하소서.
저희를 지탱해 주는 그들을 저희 또한 지탱할 줄 알게
하소서.

성령님, 저희 사제들 안에 복음의 기쁨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소서. 그들에게 건강한 우정과 형제적
지지의 관계를 허락하시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작은 유머도 허락하시며, 그들의 성소 안에 깃든
아름다움을 언제나 새로이 발견하는 은총을 주소서.
그들이 주님께 대한 신뢰를 결코 잃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기쁨을 간직하게 하소서.
아멘.

| 공동체 기도 지향

- * 임신부들과 태아들을 위해
- *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 *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 * 본당 아이들 & 청소년들을 위해
- * 교황님 기도 지향

<4월: 위기에 처한 사제들을 위한 기도 >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지향이 있다면,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알려주세요)

| 봉헌금 & 교무금 | (3월 28일 ~ 4월 3일)

봉헌금	\$ 235				
교무금	\$ 560				
구민식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정은영	조성희	주정자	황병욱	허준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4월 공동체 실천 |

**하루를 시작하면서 화살기도를 바치고,
주님의 은총과 평화를 청하기.**